시내버스 CCTV "인권 침해" 논란

10대에 4개씩 설치… 24시간 녹화

인권단체 "회사편의 위해 승객 감시"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일부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해 승객들의 동태를 녹화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D운수 등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당 1대의 시내버스에 각 4대의 CCTV를 설치, 지난 5월부터 운전석·출입문·차량 전면·버스 내부 등에서 승객들의 움직임을 24시간 녹화하고 있다.

이 카메라(대당 110만원)는 '차량용 녹화장치'로써 기존 테이프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250기가바이트 용량의 칩이 내장된 디지털 방식(Digital Video Recorder)으로 14일 간의 자료 저장이 가능하며, 2.9~3.6㎜ 렌즈로 90도 가량의 범위를 촬영 할 수 있다.

이들 회사는 시내버스 내에서 고의 사고로 보상을 노리는 승객들이나 절도·폭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애초 1대만 설치된 CCTV를 4대로 늘려 10대의 시내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내버스에 본래 설치돼 있던 CCTV는 현금 도난 방지용으로, 운전석과 앞문 쪽을 주로 촬영해왔다.

광주 D운수 관계자는 "기존 카메라는 승하차 시에만 작동됐으나 이번 디지털 방식은 다양한 각도와 24시간 촬영이 가능해 안전 사고나 도난·폭력 등 문제 발생시 손쉽게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에선 24시간 동안 감시당하게 되는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인권운동센터 최완욱(42) 사무국장은 "감시카메라로 인한 이익보다 매시간 감시당하는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클 것이다"며 "운수 회사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카메라로 감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CCTV 설치를 규제하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CCTV 설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고형석(36)씨는 "버스회사의 논리대로 라면 버스에 승차하는 시민들은 범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런 판단에 따른 설치 여부는 공권력이 해야지 회사가 판단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CCTV 자료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승객 감시용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광주시내버스 내부. 4대의 CCTV 카메라 승객들의 움직임을 24시간 촬영·녹화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여름 무덥고 비 적어 '찜통'

광주지방기상청 분석, 폭염 42일·열대야 11일 기록

올해 광주의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웠고, 비가 적게 내렸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6월~8월) 광주지역의 평균기온은 25.1도. 1971~2000년 평균 24.8도보다 0.3도 높아진 수치다. 월별로는 6월의 경우 평년보다 0.9도 오른 22.9도, 8월은 0.8도 높은 26.9도로 무더위를 선도했다.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熱帶夜)도 평년 8.3일보다 3일가량 증가한 11일 동안 나타났다.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 일은 42일이나 됐고, 낮 최고 기온도 34.3도까지 치솟았다.

예년 여름처럼 비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었다.

올 여름 광주의 강수량은 610㎜에 그쳐, 평년 평균 748.2㎜보다 18.5%나 줄었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대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온난 습윤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많았다"며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효과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찜통더위'가 더 기승을 부렸다"고 분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연장

〈自然葬〉

수목화초에 유골 뿌려

광주시 내년부터 가능

광주에서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화장한 유골 가루를 수목이나 화초 주변 등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3일 "다음달부터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내 8천700여㎡ 부지에 자연장 조성사업에 들어가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9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자연장 조성사업은 잔디장·정원장·가족장지 등으로 구분, 시공된다.

자연장지의 권역별 입구에는 사망자와 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 등이 설치되며 비석이나 상석 등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잔디장의 경우 유골 1기당 면적이 가로, 세로 25cm에 불과해 모두 1만8천여위(位)의 안장이 가능하다. 정원장은 일반 가정의 정원처럼 조경을 꾸민 뒤 그 사이사이에 유해를 안장하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자연장의 명칭 공모에 나서 '청마루 동산'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11월쯤 장사법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

광주신세계·송원백화점 등 4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감소 나섰다

상무소각장·제2하수처리장·광주신세계백화점·송원현대백화점 등 4개 사업장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나섰다.

광주시와 이들 4개 사업장은 3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앞으로 5년간 16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1천100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화석연료 과다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지역내 자발적 에너지 절약 협약 대상 33개 업체 가운데 28개와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일정과 실행방법을 제시·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녹지환경 정비사업

서구, 전국체전 대비

광주시 서구청은 전국체전을 한 달여 앞두고 외부 손님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선보이기 위해 대대적인 녹지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관내 48개 노선 총연장 150km 구간 주변 가로수의 죽은 가지 전정, 잡초제거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특히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와 선수들의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상무지구 도로 등의 가로수를 집중 관리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대회

선비정신과 5·18 계승

10월 민주묘지서 출발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월21일 국립 5·18 민주묘지 광장에서 호남 선비들의 사림 정신과 5·18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회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대회'를 연다.

참가 희망자는 5㎞·10㎞·하프코스(21㎞)로 구분해 오는 21일까지 인터넷(http : //gjspirit-marathon.or.kr)이나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하프코스·10㎞코스는 3만원 ▲5㎞코스는 1만원 ▲매니아 회원(하프·10Km코스)은 2만원 ▲20명 이상 단체 참가자는 할인(10~30%) 해 준다.

마라톤 코스는 ▲5㎞는 국립 5·18 민주묘지~석곡동 태령마을(반환점) ▲10㎞는 국립 5·18 민주묘지~5·18 구(舊) 묘지~경렬사(반환점) ▲하프코스는 국립 5·18 민주묘지~제4수원지(반환점) 등 농촌의 풍경과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자연길에서 펼쳐진다. 또 행사 당일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메달이 지급되며, 부문별 종합순위 입상자에게는 5만~3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중장비 불법행위 '명예단속반' 운영

광주시는 3일 건설 중장비의 규정을 위반한 장비 사용·자가용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명예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명예단속반 운영에 나선 것은 급증하는 건설 중장비 대수(1만1천여대)에 비해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단 7명에 불과, 효율적 단속과 지도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중장비 관련 단체와 사업자 조합 측에서 10명 안팎을 추천받아 단속반을 꾸릴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 중장비는 인력부족에 따라 지도점검과 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각종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광주시에 등록된 중장비는 굴삭기 4천353대, 지게차 1천980대, 덤프트럭 2천69대 등 1만1천138대인데 비해 업무 담당자는 시와 구를 합쳐 모두 7명에 불과하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추석 부정 축산물 단속

광주시는 추석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와 축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행위▲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김주정기자 jjnews@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4일)	
임일도	224-6006
●법무사회 법률상담(4일)	
조성주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